

제 2 연금: bAV – 2024 년

독일에서 취업해 급여를 받게 되면, 일반적으로 매달 소득세와 사회복지비(제 1 연금, 의료보험, 실업보험 등)를 납부해야 한다. 독일은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, 제 1 연금만으로는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, 이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노후대비책을 지원하고 있다.

그중에서 의미 있는 노후대비책으로는 제 2 연금(회사지원형연금, bAV)이 있으며, 이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제도 중 하나이다.

1.] 제 2 연금(bAV)에 대한 여러 표현

1. **bAV: Betriebliche Altersvorsorge: 회사노후대비보험**
2. **Direktversicherung** 직접보험이라고 주로 급여명세서에서 사용됨.
3. **Entgeltumwandlung: 급여전환**

2.] 제 2 연금(bAV)의 주요내역

- 제 2 연금의 급여전환 제도를 활용해 일부 급여를 노후대비 적금으로 전환하면, 해당 적금에 대해서는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면제된다.
- 한 달에 최대 면세 금액은 604 유로(bAV 적립 한도)이며, 면제되는 사회보험료(+세금)는 한 달에 최대 350 유로이다. (매달 350 유로를 적립하면 이금액에 대한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동시에 면제받음)
- 2022 년부터 독일에서는 제 2 연금을 도입한 직원에게 회사가 의무적으로 제 2 연금 저축금(Direktversicherung)의 15%를 지원해야 한다. (법적 의무)
- 이 급여전환 제도는 노후대비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.

3.] 제 2 연금이라고 불리는 급여전환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?

기본적으로, 급여에서 과세되기 전에 제 2 연금으로 전환된 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세와 사회복지비가 적용된다. 쉽게 말해, 제 2 연금 전환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도 면제되므로, 국가로부터 세금 혜택과 사회보험료 감면을 동시에 받는 셈이다.

실질적인 예

나이 만 41 세

거주지: 베를린

세금클래스: 1

자녀: 없음

	bAV 없는 일반급여	bAV 적용된 급여	차액
매월 Brutto 급여	3.500 유로	3.536,78 유로	
매월 급여전환 (매월 bAV 적금)	0 유로	245,22 유로 (회사지원 +36.78 유로) 매달 bAV 적금 282,00 유로	+ 282,00 유로 (회사가 매월적금지불)
소득세	498,16 유로	435,50 유로	-62,66 유로
사회복지비(직원분)	711.38	661,54 유로	-49,84 유로
Netto 급여	2.290 유로	2.157,74 유로	- 132,26 유로

회사는 bAV 금액의 15%, 즉 36.78 유로를 정해진 급여에 추가로 지급하지만, 실질적으로 회사도 직원의 bAV 참여를 통해 49.84 유로(소득세 제외)를 절감하게 된다. 따라서 회사가 부담하는 36.78 유로는 절감된 세금에서 충당되므로, 회사에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없다고 볼 수 있다.

결과적으로 부담은 직원에게 있으며, 한 달에 132.26 유로의 실수령(Netto) 급여가 감소하는 대신, 매달 282 유로(+연금 펀드 이자)가 연금으로 적립된다.

4.] 제 2 연금 (bAV) 의 2 주요특징

- 회사가 직원을 위해 bAV 보험에 가입하면 회사가 보험 계약자가 된다.
- bAV 계약은 회사와 금융기관(은행 또는 보험사) 간의 관계지만, 직원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.
- 직원의 동의로 bAV 계약이 체결되면, 직원이 퇴사할 때까지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중지하거나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.
- 그러나 만약 직원의 동의를 얻어 bAV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,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. 반환해야 하는 금액은 bAV 총 금액의 약 50%~60%에 해당될수 있다 (지원받은 금액만큼).
- 계약해지는 원칙적으로 힘들지만, bAV 보험을 직원의 동의를 얻어 일시적으로 중지할 수는 있다 (해고나 퇴사할 경우도 중지가능).